

제 9 호

연중 제 4 주일

(구라 주일)

1973. 1. 28

#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론】

## 참된 사제직이란?

양 재 철 부제

신약성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개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신약, 새계약의 유일한 사제는 정말 그리스도뿐 이시다. 교회안에 현존하는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靈)으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유일한 그리스도의 도구로써 그리스도를 역사안에 현존시키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이 직무에 불린 사람은 순명하는 겸손 즉, 그리스도라는 실재를 자기안에 받아드릴수 있는 신앙만이 요구될 뿐이지, 자기의 어떤 우월성 때문에 주어질 직무인 것 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제직이란 다양한 특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치, 조화, 성화를 위한 봉사에 있는 것이지, 한낱 생활방편에 그치고 마는 직업과 같은 것도 아니며, 더우기 우월성을 내세우는 권위 주위의 제물도 아니다. 복음의 「너희를 받아 들이는자, 나를 받아들이는 것」(마태 10 : 40)이라는 말씀이나 「세상 마칠때까지 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 20)는 약속도 그리스도를 역사안에 현존시키는 역할을 천명한 말씀이지, 결코 사제직에 불린 자들의 우월성을 보장해 주는 말씀으로 알아 들을 수는 없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에 가장 위대한 것은 「말제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일 것이다. 예수께서도 최후만찬 자리에서 당신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야 한다」(요한 13 : 14)는 말씀으로 말제가 되어 봉사해야 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유언하시지 않았는가?

예수께서는 일찌기 봉사직무라고 하는 사제직을 제정하셨다. 사제직에 불린자들은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봉사하는 공동체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말이 결코 하느님의 말씀으로 탈바꿈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스스로 하느님으로 자처하여 호모의 내성이 되고자 하는 연극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천재나 성인행세도 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야비한 인기 전술이나 위압적인 권위나 허세도 부릴 필요가 없다. 오직 평범하고도 미약한 육의 조건을 지닌 한 인간으로써, 겸손한 자세로 사심없이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며, 공동체에 주어진 특은(Charisma)를 구현 하던 되는 것이다.

하느님과 이웃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자세,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안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투명함」이 사제직에 불린자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사제, 평신자의 존재가치도 봉사정신에 입각한 말과 행동과 생활 전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고 그의 현존을 역사안에 현존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봉사를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봉사하려 왔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온 것입니다 .」(마르코 10 : 45)

(중강천주교회에서 실무 수습중) 1월31일 사제서품 예정)

## ＊ 이 주일의 미사 ＊

□ **임당송** 주 우리 하느님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못 나라들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당신을 찬미함이 우리의 영광되게 하소서

□ **독서** (고린토 전서 7 : 32-35, 성서 p. 382)  
독신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고 하며 주님의 일을 저정한다.

□ **찬가송** 어서 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 돋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

◎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더게 가지지 말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어둠속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 사람들에게 빛이 보였다.

□ **복음** (마르코 1 : 21-28, 성서 p. 76)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나병으로 신음하는 불행한 처지의 형제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당신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

3. 주여, 당신께서 허락해주시는 저희의 지혜와 능력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성취하는 일에 적극 협력케 하소서 ◎

4. 자비하신 주여, 저희가 함부로 하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상심하게 하는 일이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혜롭고 조심스러운 언행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축복해 주며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

5. 주여, 비록 어려움과 위협한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

맺음 기도 주여 비오니, 나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굳굳히 살 수 있도록 신앙에 삼덕을 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 ＊ 이 주간의 성경 ＊

29(월) 독서(헤브레아 11 : 32-40, 성서 p. 515)

복음(마르코 5 : 1-20, 성서 p. 84)

30(화) 독서(헤브레아 12 : 1-3, 성서 p. 515)

복음(마르코 5 : 21-43, 성서 p. 86)

31(수) 독서(헤브레아 12 : 4-7, 11-15, 성서 p. 515)

복음(마르코 6 : 1-6, 성서 p. 87)

1(목) 독서(헤브레아 12 : 18-19, 21-24, 성서 p. 517)

복음(마르코 6 : 7-13, 성서 p. 87)

2(금) 주의 봉헌 축일

독서(말라키아 예언서 3 : 1-4)

복음(루카 2 : 22-32, 성서 p. 127)

3(토) 독서(헤브레아 13 : 15-17, 20-21 성서 p. 518)

복음(마르코 6 : 30-34, 성서 p. 89)

□ 교리교실 □



### 세례 받으신 예수님

박진량 신부

우리는 교회내에서 「태증교우」 혹은 「신문교우」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부모가 신자이기 때문에 태어나자 바로 세례를 받았으면 태증 교우라 하고 어른이 된 다음에 교리를 배워가지고 영세입교한 신자를 신문교우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세례를 받으셨을까? 4복음서에 모두 한결같이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을 기록 하고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활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께로 부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태 3/16-17)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 받는 것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보셨다. 또 세례를 받자마자 즉시 태초에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물위를 감돌았던 (창세기 1/2 참조) 하느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여 고통받는 「야훼의 종」을 상기시킨다.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이 세례의 장면은 펍 의미심장하다. 그 뜻을 대강 간추리면 첫째, 바야흐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메시아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둘째, 그 새로운 창조사업이 물(세례)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물을 축복하고, 셋째, 예수님은 광휘찬란한 세속적인 승리의 왕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통받는 종으로서 복종만 하다가 필경에는 죽기까지 순명해야 하는 소명을 말해준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바쳐 비천한 종이 되고,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는 예수님의 소명」을 천명하고 있다. (가톨릭 신앙 입문) 세례받은 후에 즉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시련의 장소인 광야에 가서서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참조)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의 세례는 바로 그의 소명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이 수난을 당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하신 적이 있다. (루카 12/50 참조)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본죄를 사함받아 새로운 창조물 하느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기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하는 다른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 양지쪽 □



### 빛 좋은 개살구

눈이 덮힌 시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산에도, 들에도, 지붕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 소복 쌓인 가운데 동네 골목길들만 흙이 보이는 새벽이야말로 기분좋은 아침이 아닐 수 없다. 마치 한폭의 그림인양 고요한 가운데 집집마다 연기가 솟을 때면 더욱 평화스럽게 살아 있는 성싶다. 여기 참으로 평화스러운 마을이 있다. 음성 나환자촌인 동해원(고창), 상지원(합열), 신암 공소(김제)·병과 가난을 빼놓으면 말이다.

사람은 모두 하느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도, 사람들은 나병을 흔히 천형(天刑)의 병이라고 말한다. 하기는 걸모로 나타난 모습이 보기가 좀 안되어서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걸모양만 보고 그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외면하려 든다는 말인가? 오히려 거짓과 시기, 교만, 음란, 지나친 이기심과 위선으로 가득찬 내 추악한 모습이 그들의 걸모습 보다는 더 흉칙할 것이다. 어쩌면 인정머리 없이 병혹한 어떤 우리의 이웃이 더 그럴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흔히 걸모양만 보고 판단 하려 든다.

사람됨됨이야 어떻든 간에 소위 세칭 일류 교회를 나왔으니, 일류 대학을 나왔으니, 학점이 A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글썄? 인기 연속극이던 여로에서 만났던 최영구(장우재 분)도 그렇던가? 하는 것거리나 걸모습은 딱지가 좀 널떨어진 것 같아도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가? 하기가 모양좋은 음식이 맛도 있지만, 또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나환자들을 위해서 말없이 봉사하는 수녀님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고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눈내린 날이면 언제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눈길을 터 놓는가하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서로 돕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해마다 세대당 6,000여원 정도의 교부금을 짜증없이 내는가 하면, 굳건한 생활력을 지닌채 늘 웃고 지내는 모습은 수녀님들의 피로를 씻어주고 오히려 교훈마저 준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히려 내 교락서니가 빛 좋은 개살구마냥 느껴진다. 정말로. (갑)

◆ 알림 ◆

사제 서품

양재철

매: 1973. 1. 31(수) 11시

곳: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례: 한 공현 대주교

많은 교우들 참석하여 감사와 축하기도 드립니다.



### 최씨관집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병화(그때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6691 교환85번)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 제 6 회 구라주일 (1월 28일)

#### □우리의 할일□

1. 크리스찬다운 사랑을 배우자  
「내가 굶주리고 혈벗고, 병들었을 때 왜 찾아주지 않았는가?」(마태오 25장) 하시는 질책을 들을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제애를 아끼지 말자.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2. 나병에 대한 재인식을 하자.  
나병은 천형의 병이 아니다. 유전병이 아닐 뿐더러, 감염의 위험이 아주 적은 전염병이고, 조기발견해서 치료하면 다 낫는 병이다.

#### □나병이란?□

1. 전염력이 극히 약한 일종의 만성 전염병이다.
2. 조기 발견해서 조기치료하면 완치된다.
3. 초기 증상은 피부에 반점 반문 증기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 부위에 감각이 없고 땀이 나지 않는다.
4. 나병의 치료는 각 국공립 병원, 시·군 보건소, 이동진료반, 천주교, 기타 각 구라 사업 단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나환자 실태□

1. 한국의 환자수—약 8만명 (등록자 약 4만명)  
※ 인구 1,000명에 환자 2명의 비율
2. 전국의 환자 수—약 6~7천명

#### □가톨릭 구라사업 자금□

1. 구라 주일 특별 헌금  
※ 72년 한국 헌금 총액—230만원 (외국인 원조액—7천만원)
2. 가톨릭 구라 후원회 회비  
※ 연간 18만원
3. 릴리(百合)회 성금 (72년 10월말 현재)  
※ 70년 성금—122,000원  
71년 성금—442,200원  
72년 성금—643,900원      계 1,208,100원

#### □가톨릭 구라사업□

1. 병원 사업 (9개)

- ① 치료받는 등록 환자 수 : 약 4천명
  - ② 이동 진료시 치료 받는 등록 환자 수 : 약 4천명
2. 음성 환자 정착장 사업 (38개)

#### □전주교구 구라사업□

1. 병원  
※ 동정 성모회 주관의 이리 성모 병원 고 영훈 박사팀  
※ 관할 구역 : 군산, 이리, 완주군, 익산군  
동해원(고창) 상지원(함열) 익산농원  
신촌, 시온 보육원(삼례)
2. 정착장  
① 작은 자매 선교 수녀회가 주관하는 동해원 상지원 동해원 (197명)—거의 천주교 신자—수녀 3분이 봉사 (이태리인 2명)  
상지원 (212명)—천주교 신자 82명—수녀 2분이 봉사)  
② 김제군 용지면 신암공소 (127명)

#### □자녀교육 문제□

미감아들인 자녀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동해원은 미감아를 위한 국민학교 마저 없어서 더욱 어려움이 크다.

#### □생활 문제□

거의 발농사나 양계 양돈을 해서 생활해나가고 있으나 치료제인 D.D.S가 독성이 강하여 신경통 등을 유발하기 쉽고 조혈(造血)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관리에 애로가 크다.

#### □릴리(百合)회□

지난 3년동안에 12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65명에 70건의 의수족을 11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해주었다. 매월 300원 쯤의 회비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해낸 릴리회의 회원이 한국은행 전주 지점에만 30여명이 된다. 이 사업에 관동하고 협조해줄 의향이 있으신 분은 한국은행 전주지점 하옥경 양이나 본 편집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요한 1서 3장)  
백합의 향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취해봅시다.


####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 33498)

- 29<월> 지성인 교리 교실<제2기—박신부 지도>  
30<화> 성경교실

- 1 <목> 외국 문화 교실 <불어>  
2 <금> 지성인 교리 교실<제1기—문신부 지도>

\*근하 신년\*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묘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어관앞 전화 6094

\*근하 신년\*

## 동남 샤프

전주대리점

TV 및  
스토브

전주극장 입구 5504  
여 요 셉(운창)

오늘은 구라주일입니다.

불행한 형제들을 위한 특별 헌금에 크리스찬적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오.

(중양)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중순

1. 애령회 월례회 (1월 28일 저녁미사후 사제관)
2. 신동조합 월례회 (1월 28일 공식미사후 강당)
3. 양 신부님 미사 및 축하식 (2월 4일)  
본당 교우를 위한 공식미사 봉헌이 있고, 이어서 축하식을 거행 하오니 많은 영적 물적 예물 증정 바람(접수 1월 31일까지 사무실)
4. 도서실 증설 및 회원 모집
  - ① 가톨릭 학생들의 실력 배양을 위한 증설 (168석)
  - ② 모집 기간 (매월 25일~말일)
5. 본당 유지비 현황 (1972. 12. 31현재)
  - ① 예산 총액 4,360,000원
  - ② 수입부 (1,488,394)  
교무금 (637,450) 주일금 (442,144)  
과년도 교무금 (406,800) 잡수입 (2,000)
  - ③ 지출부 (1,227,506원)
  - ④ 잔액 (260,888원)
6. 사제 양성 후원비 적금 업무 개시  
2월 1일부터 신동조합에서 적금으로 접수함
7. J.O.C 봉사활동 (무로 구두타기, 자전차 보관)  
 지난 주일 봉헌금 (32,149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1. 사도회 월례회 (1월 28일 공식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1월 28일 공식미사후)
3. 형제회 월례회 (2월 4일 공식미사후)  
성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 회원의 참석 바람  
 지난 주일 봉헌금 9,153원  
학생회 봉헌금 1,04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애령회 기금을 위한 성미운동  
계속 협조 바랍니다.
2. 구정 합동 위령 미사 2월 3일  
돌아가신 부모 친지를 위한 위령미사 예물 접수
3. 학생회지 (씨앗) 원고 모집  
1월 31일까지 학생회장에게 제출바람
4. 축결혼 2월 2일 (금)  
김수광(바오로)군과 유종례(누시아)양  
 지난 주일 봉헌금 4,891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신학생 탄생 (안 이나시오 철문)  
본당 설립 이래 첫 신학생이 탄생 했습니다. 금년 교고를 졸업한 안철문군이 대전 신학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많은 기구 부탁드립니다.
2. 수녀님 이동(감사 기도 드립니다)  
가신분 김알onso 수녀님 (2년동안 봉사)  
오신분 정막다메나 수녀님 (1월 24일 부임)
3. 재속 형제회 월례회 (1월 28일, 오후 2시반)
4. 부녀회 월례회 (1월 28일 공식미사후)  
 지난 주간 성미 (3말 3되) 누계 82말 1되  
지난 주일 봉헌금 10,82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선영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2월 3일)
2. 사도회 월례회 2월 11일로 연기
3. 신동조합 월례회 1월 28일 공식미사후
4. 선종 (기 마리아 여사 (5반) - 1월 22일)  
기주중에 잊지 맙시다.  
 지난 주일 봉헌금 (8,205원)  
교무금 4,7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사제 양성 후원 사업
  - ① 각 구역 및 반회장님의 적극 권장 요망
  - ② 교우들의 적극 협조 요망
2. 주일 학교 교리반 출석 권장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형제회 월례회  
성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 회원의 참석 바람
4. 음악의 밤 (1월 29일 밤 7시반 유치원)  
학생회 셀 주회의 음악의 밤입니다.
5. 성심 유치원 1973학년도 원아 모집
  - ① 유치원에 문의 바람 (전화 8347)
  - ② 원서마감 2월 28일  
 지난 주일 성미 (1말, 현금 5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27,238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 복자 누계 150,000원  
조성호 조중렬 허순덕 (각 5만원)  
중양 누계 1,378,000원 고사 오재희 장남수 (각 5만원)  
태평 2가 김기만 (5천원) 김정식 (2천5백원)  
진북 2구 안재구 박정순 박정숙 (각 1만원) 이우순 (5천원) 태평 1가 2구 임주택 (3만원) 김동식 박상기 (각 2만원) 정세원 송근형 전수복 박남주 하정호 이봉길 (각 1만원) 서노 2구 정용덕 양베로니카 (각

- 5만원) 진북 1구 김검춘 김후철 김후순 조정례 임옥희 (각 1만원) 김후영 김복남 박화순 이순례 강완순 홍연남 (각 5천원) 금암 정만덕 김준순 (각 1만원) 김순미 박덕자 이일선 양쌍수 한미해 조정에 김한곤 홍정에 정봉춘 오영천 정관례 문병문 정보옥 심용택 (각 5천원) 임금례 남안순 이계순 백갑례 이길남 소점옥 (각 2천5백원) 서노 1구 윤팔만 (5천원) 중노 박공순 (5천원) 성모회 합동 (1만원)

미담  덕진 본당 학생회 연례 피정 (36명 참가)에 본당 어머니들의 모임인 성모회 (聖陸會)에서 금일봉을 회사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 준 훈훈한 이야기가 있다. (1. 25-26)